



특허 시스템으로서의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김 태 희 | 영산대학교 학생처장

I. 개요

최근의 취업난과 대학간의 경쟁은 한 대학의 교육이 산업의 인력 수용 구조에 더욱 날카롭게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즉, 대학이 학생의 취업을 위하여 예측 가능하며 평가 가능한 일을 전개하여 어떠한 작용이 학생을 산업의 어느 위치에 보낼 수 있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영산대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적 구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취업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년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다. 학년말에 단계별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이용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이러한 오류 수정의 단계를 거쳐 취업목표에 더욱 참여하게 다가 가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산 자원의 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형적으로 운영된다. 전산자원은 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정형화된 지식

으로 축적시켜 향후 오류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산 처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스템의 형태로 기술 가능하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영산대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시스템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쓸모 많은 경험적 정보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축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허 출원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구를 정리하고, 출원 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의 시스템적 접근법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II.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시스템적 접근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나아가서 존재의 이유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까다로운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학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는 사회에 인재를 공급하는 것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즉,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최소한 쉽게 상상 가능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들어야 할 노력의 내용은 학생의 취업에 대한 의지나 취업의 질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내포하기도 하고, 대학의 숭고한 학문 추구 의지와 등과 관련된 제도 초월적 문제와 연관 있는 등 그 정의와 정체성의 포지셔닝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학의 교육 자원을 취업지원의 관점에서 재배열한다는 것은 그 대학이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하부부터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자원 활용 구조를 사회의 요구에 비추어 매우 건강해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보편적인 대학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다소 막연하다는 것이 직관적이며 경험적인 일반적 관찰의 결과이기 쉽다. 많지 않은 수의 대학이 실행하는 맞춤형 교육이나 밀착된 학생지도에 의한 진로지도는 선진적인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 학생들은 고학년이 되어서야 취업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현실적인 목표를 찾으며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학생의 대학생활이 완전히 취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로의 목표를 일찍 설정하면 학생은 더욱 과학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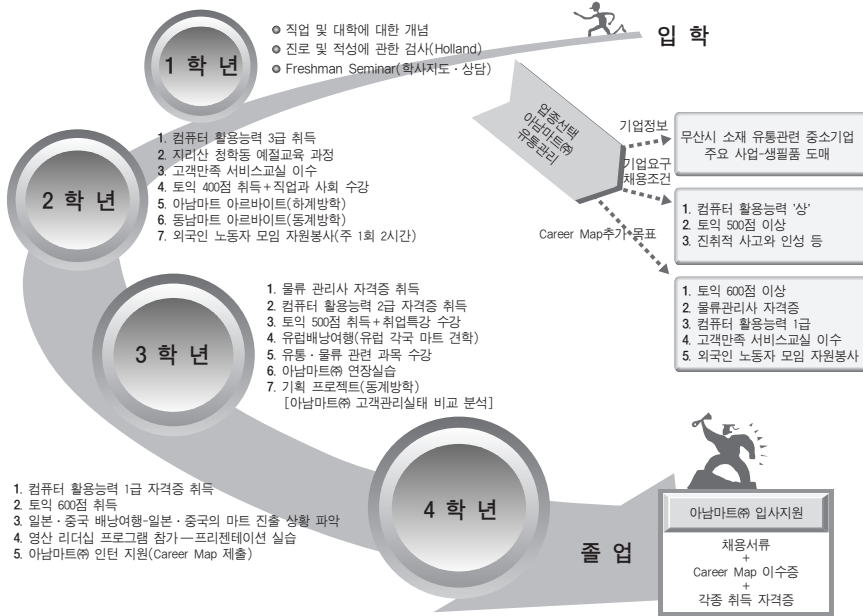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목표를 일찍 설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적 작용을 가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구분할 수 있는 세부 단계별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단계별 오류 수

정 능력이 있는 피드백 시스템인 것이다. 취업 중심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취업 요령만이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뼈대를 사회의 인력 요구성에 직접적으로 걸쳐지게 하고 그 뼈대에 대학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교육의 살을 붙여감으로써 산업이 요구하는 방향에서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활동을 시스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자원 투입을 목표 지향적으로 이루어내기 용이하다. 결과 예측도 용이하며, 논리적 평가도 가능하다. 또, 조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므로 자원의 집중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활동적 가치가 조직에 체화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Ⅲ. 영산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영산대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하나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은 취업 목표를 저학년에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취업 목표를 조기에 설정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과학적인 상담능력이다. 학생 개인을 위하여 개인화된 취업목표를 찾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인 직업적성 검사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산업의 동향이나 개개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서술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많은 기업은 채용에서 인성, 창의성, 진취성 등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시스템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척도를 고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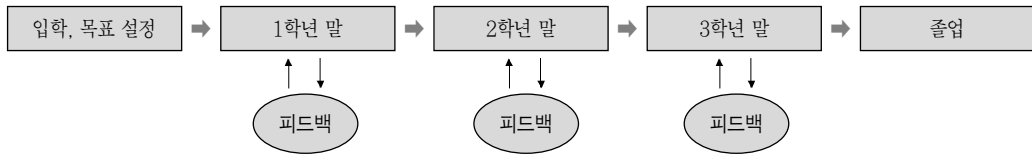
(그림 1) 취업목표 설정 과정과 커리어 맵

에 대한 활발한 연구 체계와 교육경험도 축적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각 학년 단위로 대학과 학생이 해야 할 일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도출한다. 목표 분할 과정은 중요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최적의 분할은 타당성 검증은 필요로 하며 학생의 발달 요인 등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목표 분할 요령은 시행착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험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을 정형화 및 일반화하여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목표가 설정되고 학년 단계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도출되면 학교로서는 학생 지도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게 되며 학생에

게는 보다 선명하게 목표를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최대의 장점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원을 학생에 맞춘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전공의 선택이나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이며, 학생의 동아리 선택이나, 학생 상담의 방향, 다양한 부대 교육 프로그램 수료 권유 및 제공이 목표 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교육자원의 취업 지원 형태로 재배열되는 것을 의미하여 자원 활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둘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학년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클리닉 성격의 추가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목표 설정 수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로 판단되면 목표를 더욱 현실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학생의 노력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학교의 노력을 더욱 쉽게



(그림 2) YCMP의 시스템적 기술

납득할 수 있어 교육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대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게 하는 하나의 목표관리 시스템이다. 기술된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생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은 길을 걸으며 따라가야 할 지도에 비유될 수 있다. 입학 후 상담에 의하여 취업목표와 4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전산 상에 기술되며 이것은 커리어 맵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영산대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영산 커리어 맵 프로그램 (Youngsan Career Map Program)” 즉 YCMP로 명명되었다. [그림 1]은 취업 목표 설정과 이에 따라 제작된 커리어 맵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학과 함께 상담에 의하여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취업목표가 요구하는 입사조건을 확보하여 기술한다. 확보된 입사요건을 더욱 상세히 기술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학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학년별 목표로 분할한다.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취업목표 설정을 선행함으로써 학생은 미리부터 취업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다. 즉, 전공 학업을 포함하여, 동아리 활동, 취미활동, 여가 활동, 봉사 활동, 아르바이트, 여행 등을 이용하여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다양한 활동을 목표지향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IV. YCMP의 시스템적 기술과 특허

YCMP는 대학의 체계적이며 작동 가능한 능력 확보를 위하여 시스템화되어 추진된다. 입학과 함께 설정되는 취업목표와 학업계획은 전산상에 기록되어 참조되고 관리된다. 매 학년말에 학생 능력 발달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오류수정이 이루어진다. 오류수정은 목표의 수정이 될 수도 있으며 목표대비 능력 부족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클리닉 성격의 집중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도, 또 두 가지 모두에 의하여 되어질 수도 있다. 기존 대학의 교육이 미리 대부분 그려져 있는 학점 수료위주의 교육이라면, YCMP는 학생 발달 과정에 클리닉 성격의 집중 교육을 도입하여 목표지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2]는 학년 단계별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피드백 시스템으로써의 YCMP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학년말의 피드백은 기존의 수시적이며 비정규적인 학생상담 및 지도를 정규화된 시스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대학은 매우 전문적이며 정확한 상담능력과 학습과정 관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선 개인의 학생이 가진 적성과 선호 기업을 파악


해야 하며 그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요건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식과 입사요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은 전산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산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YCMP는 커리어 맵과 기업관련 지식, 그리고 상담 및 지도 행동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정형화하여 전산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 즉, 전산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의 흐름과 지식의 관리가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취업 중심의 교육에 전산시스템의 지원을 받는 시스템적인 접근법을 도입함으로써 경험과 지식이 정규화 되어 축적되어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그리고 예측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대학교에서는 2004년 1학기부터 YCMP를 도입하였고 특허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특허의 등록은 재산의 지적 재산의 보호 측면보다는 지적 재산의 구체성 및 시스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하여 추진되어지고 있다.

V. 결론

대학의 사회 변화에 대한 충실도 결여가 현재까지 축적시킨 대학-사회의 이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은 자생적인 사회적응보다는 매우 혁신적인 인위적 영향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대학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교육능력 구현 방식을 바꾸는 체질적 개선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관련 있음으로써 매우 어렵다. 취업지원 위주의 교육자원

재 배분은 대학의 체질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 판단이다. 이러한 자원의 재배분은 단순히 교육 목표의 수정 차원이 아니라 교수 학생간의 접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변화를 요구하며 자유분방함을 충분히 허용하는 동시에 통합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 통일적 행동지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더욱 넓게는 대학문화의 변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변화가 필요하여 어떠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목표의 설정과 그 내용의 관리는 조직의 직무가 아닌 사람에 의존되기 쉬우며, 평가도 어려우며, 전달과 이해 또한 어려워 하나의 조직이 가져야 할 일의 수행방식으로 채택되어서는 곤란하다.

대학이 시도할 교육활동의 시스템적인 접근은 학내의 다른 역량과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조직 운영체제인 YCMP가 다른 교육활동과 자연스럽게 접목되어지거나 다른 교육활동을 YCMP 내에 끌어들이 수 있기 위하여 YCMP의 설계는 매우 정교해야 한다. YCMP는 아직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며, 계속 진화하여 대학 내에 산재한 경쟁력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시스템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역량 발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희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였고, Department of AI, University of Edinburgh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거쳐 현재 영산대학교 멀티미디어 공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멀티미디어공학부장, 정보전산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학생처장으로 활동 중이다.